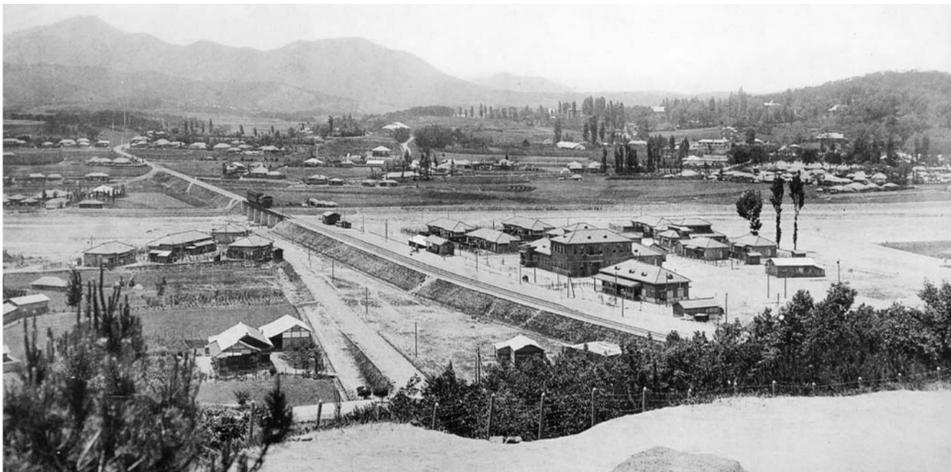


남광주에서 광주현대사 되짚어보다

시립민속박물관 '남광주' 발간
남광주역·학동 배수지 등
명소 토대 남광주 변천사 그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물
주민 애달픈 삶의 목소리도



일제 강점기 발행된 사진엽서 속의 남광주역 일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제공>

조선대 장례예식장이 들어선 언덕은 원래 활터가 있었던 데서 '남광정(南光亭) 언덕'이라 불렀다. 또한 1920년 처음 광주에 수도물이 공급됐을 당시 이곳에 정수장과 배수지가 있었다.

남광주에서 광주의 현대사를 되짚어보는 조사보고서 '남광주'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최근 남광주시장, 옛 남광주역, 지금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 학동 팔거리와 백화마을 등을 품은 남광주를 다룬 최초의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300여 쪽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는 꼼꼼한 문헌과 현장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남광주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들의 실체를 분석한다. 또한 그동안 잘못 알려졌거나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을 발굴하는 데 힘을 쏟았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외부전문가 3명에 게 의뢰해 5개월에 걸쳐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물관 측이 원고를 최종 집필하는 방식을 통해 발간했다. 박물관 측은 단순히 조사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진, 고문헌, 지도, 옛 일간지 등을 통해 수집한 결과까지 책자에 녹여 담아냈다.

보고서는 남광주역, 남문로, 학동 배수

지 등 여덟 곳의 명소를 토대로 남광주의 변천사에 초점을 맞춘다. 철도, 도로, 상수도 등 광주의 현대도시 문화가 꽃피울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을 들여다본다.

보고서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남광주에 대한 '상식'과 다른 이야기도 들려준다.

경전선 철도의 산물인 남광주역이 남광주시장의 출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광주시장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는 사실을 국가기록원과 광주시 행정자료 그리고 당시 지역일간지를 통해 꼼꼼하게 검증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학동 팔거리(현 학동 휴먼시아 2단지)는 1930년대 도시민들의 집단거주지로 조성됐다는 사실과 동네의 독특한 생김새 정도도만 주목받는데 그쳤다. 이 동네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일제가 동네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도면밀하게 통제하고 감시하려 했던 정황도 밝혀냈다.

그렇다고 보고서가 학술적 얘기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남광주 일대에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바람 부자', '먼지 부자', '물 부자' 등 세 부자가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왜 그들이 이런 별명을 얻게 됐는지도 들려준다.

또한 일제 때 호남은행장을 지낸 현준호

가 일종의 개인별장으로 학동삼거리 근처에 지은 '무송원' 건물에 얽힌 일화, 1930~40년대 광주사람으로는 드물게 영화제작자로 명성을 올린 최남주의 인생역정도 담겨 있다. 무엇보다 보고서 말미에는 남광주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전하는 강인하면서도 애달픈 삶의 목소리도 수록돼 있다.

한편 박물관 측은 "남광주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것이 너무 늦었다 싶을 만큼 광주 현대사의 얘기가 가득한 지역이다.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잠들어 있던 남광주의 얘기들을 흔들어 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 역사가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하고 다시 써내려가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고 발간 소회를 밝혔다. 문의 062-613-5361. /박성천 기자 skypark@

기억과 단상을 꽃의 이미지로 형상화

시산백 감성기획시선

임내영 시인 '눈물의 농도'

"잠이 오질 않았다. 잔상으로 남아 있는 생각을 붙잡고 붙잡아 네 번째 시집을 창작하기까지 거미가 실을 뽑아내듯 검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뽑아 지었을까 흰머리가 보인다."

제19차 시산백 감성기획시선 공모 당선 시집인 임내영 시인의 '눈물의 농도'는 한마디로 꽃을 이미지화한 시집이다. 모두 60여 편의 작품 가운데 상당수가 "꽃의 모습으로" 피워냈다고 해도 무방하다. '매밀꽃', '허꽃', '꽃 핀다', '둥근 꽃 반으로 접어', '마음 꽃', '거시기' 등 다수의 작품에서 특유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거시기, / 뭇 거시기 하면 알아서 통하는 // 거시기 하면 거시기가 되고 / 거시기의 거시기 하면 / 거시기 옆에 급한 마음을 잡아놓는 거지만 // 사투리 쓰는 거시기가 살가워 / 이다음에 크면 그런 거시기랑 결혼한다 했다 / 거시기 한다고 다 내 거시기가 되지 않았지만 / 그게 거시기의 인생론 // 바람 상큼하다가 / 비, 기우여 내리면 / 꽃들은 비바람의 거시기



인양 고개 쳐든다 ..."

위의 시 '거시기'는 전라도 방언으로 '이름이 바로 생각나지 않거나 직접 말하기 곤란한 사물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이다.

'거시기'에는 서로의 마음을, 생각을 안다는 이심전심의 의미가 담겨 있다. 시에서 화자의 생각은 "인정욕망으로서의 꽃의 경계를 훌쩍 넘어 더 시인의 공통시간 속으로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분이 없는, 이쪽과 저쪽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꽃의 세상이다.

안차에 시인은 '꽃들의 변증법'이라는 해설에서 "시작 시집은 시인이 주변의 오브제와 사람들 그리고 어떤 기억과 단상(斷想)의 순간들을 돌고 돌아 나직함 꽃의 모습으로 피워내는 유정(有情)한 시집"이라고 평한다.

한편 임내영 시인은 중앙대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작품집 '멀치몽 빼고', '데칼코마니', '눈이 눈을 볼 때'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따뜻한 손편지로 감사의 마음 전하세요

20일까지 유·스퀘어 '해피 유·레터' 수기 공모

새해를 맞아 감사한 마음을 따뜻한 손편지에 담아 전해보면 어떨까?

광주 유·스퀘어가 손편지를 1년 뒤에 무료 배달해주는 '해피 유·레터' 행사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편지를 쓸 수 있는 '느린 우체통'은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1층 영풍문고 앞에 비치돼 있다. 마련된 엽서와 볼펜으로 편지를 써서 부치면 유·스퀘어에서 1년 뒤 무료로 해당 주소지로 발송한다.

'해피 유·레터'는 매년 1000통이 넘는 우편물을 엽서를 쓴 본인을 포함한 가족, 연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유·스퀘어는 지난해 썼던 엽서를 올해 받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기 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유로운 형식과 분량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를 기재한 뒤 담당자 전자우편(u.culture@naver.com)으로 오는 20일까지 보내면 된다. 우수 사연으로 선정되면 아시아나항공 A380 모형 비행기와 문화상품권, 영화 관람권, 공연 초대권 등을 증정한다. 문의 062-360-8438.

'해피 유·레터'는 매년 1000통이 넘는 우편물을 엽서를 쓴 본인을 포함한 가족, 연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알함브라 기타 콩쿠르 우승자와 떠나는 스페인 여행

박규희 리사이틀 8일 금호아트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클래식 기타 요정' 박규희의 연주로 듣는다.

올해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에는 피아니스트 선우예린,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임지영 등 최정상급 클래식 연주자들이 온다.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무대를 빛낼 연주자들 중 '알함브라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둔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가 첫 타자로 나선다. 박규희 리사이틀 '스페인 기타 여행'이 오는 8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빈 국립 음대에서 기타를 공부한 박규희는 세계적인 권위의 '스페인 알함브라 국제기타콩쿠르'(2012년)와 '독일 하인스베르크 국제기타콩쿠르'(2007년) 등 9번에 걸쳐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뒀다.

지난 2008년에 열린 '벨기에 프랑켄 국제기타 콩쿠르'

에서는 아시아인 그리고 여성 최초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박규희는 지난 2012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미국 데뷔 무대를 성공리에 마친 뒤 국내외를 오가며 활발히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규희는 지금까지 총 8장의 앨범을 발표했는데, 폰텍 레이블에서 발매한 2010년 데뷔앨범 '스에노'(Sueno)와 2012년에 선보인 '소나타 누아르'(Sonata Noir)는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롱 베스트셀러 앨범'으로 선정됐다.

기교의 정확성, 연주의 집중력, 섬세한 표현력을 인정 받은 박규희는 한국 대표 기타리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젊은 클래식 기타리스트의 대표주자로서 현재 유럽과 일본, 한국에서 활발한 콘서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 LG아트센터 단독 리사이틀,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 NHK교향악단 협연 등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박규희는 이날 공연에서 타레가의 '라그리마', '아라비아 기상곡', 알베니스의 '아스투리아스' 등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작품으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전석 3만원(학생 2만원). 문의 062-360-843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여성사 연구 발자취 조명 소식지 발행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이 2일 국내외 여성사 연구의 발자취를 집중 조명하는 소식지 13호 '여성, 세상과 통하는 길'을 발행·배포했다.

이번 소식지의 기획특집 주제는 '여성사 연구, 그 발자취'다. 먼저 기계형 국립여성사전시관 광장(국제여성박물관협회 아시아 대표)이 '여성의 역사를 통해 박물관 콘텐츠를 재구성하라'를 통해 전세계 여성사 연구 실태와 관련 콘텐츠를 담아낸 우수 공간들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소식지는 광주여성재단 전시관과 조

아라기념관 등 열악하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여성사 공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통합된 전문 공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2018 광주여성문화난장과 9회 광주여성영화제, '낙태죄'를 주제로 한 성평등정책 현안워크숍 현장과 광주지역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 안전 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한 광주여성재단의 연구 내용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문의 062-670-053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로스크린, 전동로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로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씨브웨이 광주충장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교야전통마사지 전문점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대로변 새건물 2층) 최신시설완비, 남여마사지 전문점, 친절 신용 본위 ☎010-9277-2011, 010-4624-8457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시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장어), 샤브샤브 전문점, 바다정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력)·양력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루팡닭강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해피니스요양병원 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아맨션 건너편) ☎062)251-8400		